



자기관리형은 자신의 이력이나 결혼 전의 삶을 잘 관리해왔던 것 처럼,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관리해나갑니다. 결혼 생활 또한 자녀를 ‘엄친딸’ ‘엄친아’로 키우듯 가꿔나갑니다. 결혼은 ‘내 인생의 얼굴’이므로 잘 관리하며 가꿔서 남들에게 번듯하게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좋은 짝을 만나, 번듯하고 풍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 조건이란, 바로 흔히들 말하는 스펙인 경우가 많지요. 그 사람의 학벌, 재산, 집안, 외모 등등…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좋은 짝이란 바로 당신 자신의 수준, 즉 자신이 갖춘 스펙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통념적인 조건만을 중요시하지는 않으며, 당신만의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만, 사실 당신에게는 ‘나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을 당신이 가꿔갈 결혼생활의 기본인 자신의 짝으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관리형인 당신은 ‘조건’을 따져서 결혼합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독신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결혼은 피할 수 없는, 꼭 해야만 하는, 반드시 잘 해야 하는 지상 과제로 생각합니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관리형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겠지요. 그 조건은 통념적인 사회적 지위나 돈과 같은 조건일 수도 있고, 본인만의 특별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에 대해 ‘내가 왜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헌신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거나,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무조건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배우자에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편이지요. 즉 배우자를 당신의 기준 또는 틀에 맞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당신 중심의 요구들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하고,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잘 관리된 당신의

결혼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비교적 이상적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결혼의 정답’과도 같아 보일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당신은 수준이 맞는 배우자와 함께 수준 있는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또한 열심히 가꾼 당신의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받을 때 뿌듯함과 은근한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던 스타일인 당신은 결혼 전에는 자신의 스펙을 잘 관리하는 '엄친아', 혹은 '엄친딸'이었을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당신에게 '자신의 삶'이 배우자 보다 우선이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직장에서도 "결혼하고 나서 회사 일에 소홀해졌다"는 평을 듣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생기면 당신의 관심의 초점은 배우자에서 자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처럼 당신의 자녀 또한 훌륭한 스펙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자녀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연예기획사에서 신인을 발굴하여 키워나가듯, 자기관리형 엄마는 연예기획사의 사장처럼 모든 것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전문 트레이너처럼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또 로드메니저가 되어 아이를 이곳 저곳으로 실어 나릅니다. 당신이 자기 관리형 엄마라면, 아이가 다니는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아이의 친구 인맥과 부모님들간의 인맥까지 관리하며 바쁘게 살고 있겠군요.

이렇게 바쁘게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관리하는 당신은 배우자와 감정적인 교류가 더 이상 없다는 느낌이 든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교류는 마음 통하는 친구나 지인들과의 대화로 대신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남들이 보기에 번듯하고 멋있는 가정의 모습, 결혼생활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자기관리형인 당신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아껴주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그런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당신의 결혼을 궁극적으로 최상의 결혼,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결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결혼의 행복은 남들이 봐주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 즉 내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당신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배우자를 존경하고 귀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행복이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 더 알고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조건은 괜찮지만 당신과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WPI(현실) 성격 검사를 받아볼 것을 추천합니다. 서로의 성향을 알면 좀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겠지요.



<결혼 체크리스트 읽는 방법>

현실 결혼 체크리스트는 결혼을 한 당신에게는 당신의 결혼이 안녕한지를 진단하는 검사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종합 검진처럼, 당신의 결혼생활을 검진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당신은 거울을 보듯이 결혼 생활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이 검사 결과에 불만이 없다면, 현실 결혼 유형 결과를 이상 결혼 체크리스트 결과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혼 유형이 현실 결혼 유형과 비슷하게 나온 경우, 당신은 별 불만 없이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이상 결혼이 현재 결혼과 상이한 이미지를 가진 것으로 나온 경우, 당신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의 결혼 생활과는 다른 결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결과지의 현실 결혼 유형이 당신의 생각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다면, 당신은 현재 자신의 결혼 상태에 대해 혼란스럽고, 스스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뭐라고 진단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이 있죠. 말하자면, 몸이 아파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당신의 병은 암이 균요'라고 진단을 했는데, 환자 본인은 '내가 암에 걸릴 리가 없어'라고 반응하는 것과 유사한 심리 상태이지요. 이 경우에도 당신의 현실 결혼 검사 결과와 이상 결혼 검사 결과가 비슷하다면, 즉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과 현실의 결혼이 별 차이가 없다면, 당신은 만족하게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검사의 결과가 잘 매치가 되는데도 본인이 뭔가 결과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의 결혼을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서 생기는 혼란이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상 결혼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 것을 권합니다. 아직 결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의 '현실'과 '이상'이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결혼 검사를 통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꿈꾸는 이상 결혼을 현실에서 이룰 수 없을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당신은 막연히 '현실에서 나의 결혼은 이럴 것이다'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도 두려움, 혹은 거부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신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 만든 생각이고, 실제 결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좋겠죠. 당신이 당신과 배우자의 욕구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또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꿈꾸는 이상 결혼을 현실 결혼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